

최원섭의
불교, K-드라마로 만나다

㉓ '나의 아저씨'(2018)

'자리이타원만' 불교 가치 드러내

〈自利利他圓滿〉

중국에 선(禪)을 전한 달마 스님에게 혜가 스님이 찾아와 물었다. "스님께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 달마 스님이 대답했다. "마음을 가져오너라. 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리라." 이어지는 혜가 스님의 대답. "마음을 찾아도 끝내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달마 스님의 대답이 이어진다. "찾아지면 어찌 그것이 너의 마음이겠느냐? 벌써 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는 뜻의 '안심법문'으로 유명한 선종의 일화이다. 달마 스님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는 드라마들이 있다. 오늘은 치유 드라마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나의 아저씨'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여섯 살에 병든 할머니와 단둘이 남겨진 이지안(배우 이지은)은 닥치는 대로 일을 하지만, 버는 족족 아버지가 진 사채를 갚으며 살아간다. 그 와중에 정당방위로 판정을 받았지만 살인도 저질렀다. 정상적으로는 세상을 살기 힘들어 보인다. 이런 이지안을 괴롭히는 사채업자 이광일(배우 장기용) 역시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광일은 분노와 폭력으로밖에 의사 표현을 할 줄 모르는 불쌍한 인간이다.

남자 주인공 박동훈(배우 이선균)은 어떤 상황에서도 꾹 참고 버티는 '착한' 인물이다.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대기업 건설사 부장으로 일하는 집안의 기둥이다. 한직인 안전진단 팀으로 밀려나도 불평 한마디 없이 버티고, 대학 후배가 대표이사인 불편한 상황에서도 그저 버틴다. 게다가 인생의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는 형과 동생에, 그런 형제를 걱정하는 노모의 상황도 살펴야 한다. 동훈의 아내인 변호사 강윤희(배우 이지아)는 대학 때부터 사귄 동훈의 사람 됨됨이가 좋아서 결혼했지만 본가 가족에 대한 의무를 다하느라 자신이 1순위가 아닌 동훈에게 늘 화가 나 있다. 그래서인지 남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대학 동기인 도준영(배우 김영민)과 불륜을 저지르는 중이다. 도준영은 도준영대로 늘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 젊은 나이에 사장이 되고 보니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빼앗길까 노심초사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불륜 상대가 하필이면 자신이 열등감을 가진 학교 선배이자 직장 부하인 박동훈의 아내 강윤희다.

이처럼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 불교에서는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의 실체를 분명히 바라보고 그 원인을 찾아야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가르치지만 '나의 아저씨'의 등장인물들은 현실을 '직시'하려고 하지 않는다.



사진 출처=tvN 공식 홈페이지

가족에 희생 지안과 버티던 동훈
현실 아픔 확인하고 서로에 위안
달마 스님 안심법문 같은 드라마

동훈은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아냐"를 약 삼아 버티고 있지만 사실은 눈앞에 있는 현실을 회피하고 있을 뿐이다. 갑자기 출장을 간다는 아내의 말을 믿지 않으면서도 굳이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심지어 아내의 불륜을 알고도 참는다.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동훈의 말은 사실 그것이 '아무것'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그런 동훈의 삶은 준영의 지시로 동훈의 흠을 잡기 위해 도청하고 있던 같은 회사의 임시직원 지안을 만나면서 바뀌기 시작한다. 동훈이 지안에게 가진 관심은 남성과 여성이 아닌 '사람'에 대한 관심이었다. 지하철에서 우연히 지안을 만난 동훈은 추운 겨울에도 복숭아뼈가 드러날 만큼 짧은 양말을 신고 있는 지안의 발을 본다. 다음날 동훈은 "배고픈데 밥 좀 사 주세요"라는 지안의 말을 끝내 외면할 수가 없다. 결국 "춥지 않냐"고 양말 이야기를 꺼내며 사람으로서의 관심을 드러낸다.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 '아저씨'는 성별로 판단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버젓한 어른'을 상징하는 단어다. 지안의 할머니가 돈이 없어서 요양병원에서 쫓겨나기 직전임을 알고, 손녀에게는 부양 의무가 없음을 알려주어 무료로 요양병원에 있게 해 주고는 "이런 거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었냐"고 묻는 것은 바로 지안의 주변에 제대로 된 '어른'이 없었음을 상기시켜 준다.

드라마에서 또 하나의 축은 동훈의 친구 정희가 운영하는 작은 선술집 '정희네'에 밤마다 모이는 동네 사람들이다. 일명 '정희네' 일당이라고 할 만한 동훈의 형과 동생, 그리고 선후배 친구들. 평범한 소시민으로 선하기 짝이 없는 이들은 야근한 지안을 다 같이 집까지 데려다 주기도 하고 지안 할머니의 장례식을 치러 주기도 하면서, 지안에게 기꺼이 어른 노릇을 해 주는 인물들이다. 지안은 제대로 된 어른들 속에서 사람들과의 교감을 배운다.

번듯한 대기업의 부장에 변호사인 아내를 둔 동훈이 자신과는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이라 생각했던 지안은 동훈을 도청하는 동안, '아저씨'의 인생이 자신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느낀다. 그리고 희망이라곤 없었던 자신의 처지를 동훈이 이해할 수도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기 시작한다. 지안이 자신을 도청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동훈 역시 남에게 드러낼 수 없는 모습까지 속속들이 알게 된 지안을 속내를 털어놓는 친구 대하듯 한다. 인간 대 인간으로서 서로가 겪고 있는 현실의 아픔을 확인하고 서로에게 위안을 주는 것이다.

드라마는 "미워하는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란 노래 가사를 통해 "다시 태어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준다. 가족 때문에 희생하던 지안과 그저 버티기만 하던 동훈은 서서히 자신을 아끼는 법을 배워 가고 드라마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자리(自利)'의 삶이 바로 '이타(利他)'의 삶임을 가르쳐 준다. '자리이타원만(自利利他圓滿)'이라는 불교의 가치를 드러낸 것이다. 그리고 그런 '자리이타원만'의 가치를 "너를 위해서 내가 행복하겠다"는 동훈의 말로 강조한다.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 시간이 흘러 길에서 우연히 지안을 만난 동훈은 또래 여성들과 어울리며 밝게 살아가는 지안을 바라보며 혼잣말로 묻는다. "지안, 편안함에 이르렀나?" '지안(至安)'이라는 한자의 의미를 통해서 지안의 안부를 묻는 이 대사는 달마 스님의 안심법문을 떠올리게 한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을 맞아, 이 지면을 통해 드라마 이야기를 들어 주신 분들께도 정중히 여쭙고 싶다. "드라마로 보는 불교를 통해 편안함에 이르셨습니까?"

〈대행선연구원 연구원〉

출가자는 삼세 부처님이 호지한다



법공 스님의
〈지장십륜경〉 강의

㊺ 삼승공신의 권유(三乘共信의 勸誘)

그러므로 여래는 저 일체의 착한 왕과 그 권속들을 자비심으로 가엾이 여겨, 어둡고 긴 밤(착한 이들의 핍박 시대) 동안 이익과 안락을 얻게 하기 위해 이렇게 말하느니라.

"너희들은 부디 내 법에 귀의하여, 머리 깎고 가사를 입은 출가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비방 책벌하지 말며, 내가 말하는 삼승의 바른 법을 헐뜯거나 방해 은폐하지 말라. 만일 내 말을 어기고 일부러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과보는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법에 귀의해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은 출가의 모습은 곧 삼세의 모든 부처님과 보살이 대비신력으로 호지하는 바이며, 그 위의는 모든 성현들의 해탈의 당기[幢] 모양이고, 그것은 또 모든 성문, 독각, 대승을 성취하는 사람들의 해탈하는 모습인 동시에 수용하는 법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여래가 설하는 삼승의 정법도 역시 삼세 부처님과 보살이 대비의 신력으로 호지하는 바이며, 이는 모든 성현의 해탈이 의지하는 곳이며 모든 성문과 독각과 대승이 수용하는 해탈의 법미(法味: 진리의 본질)가 의지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선남자야, 따라서 해탈을 구하는 이는 마땅히 나의 법에 귀의하여 머리 깎고 가사를 입은 출가한 사람을 친근·공경·공양해야 하느니라.

①먼저 성문승의 법을 믿고 공경하되, 자기가 듣고 받아들였으면 남도 듣고 받아들이게 할 것이며, 자기가 독송·필사·보시·설명하며 생각하고 수행하였으면, 남도 또한 그렇게 하여 널리 퍼지게 하여야 하느니라.

②또 독각승의 법을 믿고 공경하되 자타가 받아들이게 할 것이며, 자타가 같이 독송·필사·보시·설명하며 생각하고 수행하였으면, 남도 또한 그렇게 하여 널리 퍼지게 하여야 하느니라.

③또 이와 같이 대승의 법을 믿고 공경하되 자타가 듣고 받아들이게 할 것이며, 자타가 같이 독송·필사·보시·설명하며 생각하고 수행했으면, 남도 또한 그렇게 하여 널리 퍼지게 하여야 하느니라. 만일 그가 법의 그릇이 아니라면 (그의) 말을 듣지 말고 남도 듣지 말게 할 것이며, 일체의 악법을 멀리 떠나야 하며, 악한 벗을 버리고 착한 벗과 친할 것이며, 여섯 가지 바라밀을 닦아 익히고 일체 악업을 자주 참회할 것이며, 능력에 맞는 바른 소원을 부지런히 내야 하느니라.

그리하여 지금의 몸으로 성문승의 그릇을 이룰 수 있을 것이요, 혹은 독각승과 대승의 종자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삼승을 다 배워 닦아야 하고, 교만하여 함부로 대승이라 부르면서 성문승과 독각승의 법을 비방하거나 헐뜯지 않아야 하느니라. 나는 먼저 대승의 법기로서 굳게 수행하는 사람만을 위해서 '오직 대승을 닦아 구경을 얻으라'고 말하였으므로, 먼저와 지금의 말이 서로 틀리지 않느니라."

그때 부처님께서 이 뜻을 거듭 나타내기 위하여 게송으로 말씀하셨다.

"많은 대중 앞에서 금강장 보살은 내게 물었다. ①계율을 깨뜨리는 악행 비구에게 어째서 공양하라 권하느냐고. ②두타의 공덕을 잃고 어리석고 나쁜 견해를 가지고 도를 더럽히는 법기가 아닌 사람, 그를 책벌하는 것을 왜 허락하지 않느냐고. ③어떻게 그를 따라 삼승의 미묘한 법의 진실한 해탈의 법문을 듣고서 적정의 열반에 나아간다고 설하느냐고. ④또 무엇 때문에 다른 경전에서는 대승의 해탈만을 주장하면서 '이승 법'은 배우지 말라 하시더니, 왜 지금 다시 삼승을 말씀하시느냐고. ⑤일체 유정을 가엾이 여겨 삿된 업 버리고 이익과 안락을 얻을 수 있게 의심을 풀어 달라고."

부처님께서 금강장 보살에게 답하셨다.

"선남자야, 저 찰제리 왕의 권속 등을 이롭게 하기 위해 비구를 괴롭히지 못하게 한 것이니, 그가 큰 죄를 지을까 두려워서이니라.

또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은 것은 모든 부처님 법의 당기 모양이요, 모든 부처님이 함께 호지하는 해탈로 나아가는 도복(道服)이니라.

비록 율의는 깨뜨렸지만 해탈을 영원히 막은 것이 아니니, 능히 나쁜 견해를 버리고 속히 열반으로 나아가리라. 마치 좋은 약이 썩었더라도 뭇 병을 고치는 것처럼, 그 같이 율의를 깨뜨렸더라도 남의 괴로움은 없앨 수 있느니라.

그 비구가 포살 갈마에 참여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아도, 남을 위해 설법하는 것은 허락하나니 함께 복 받을 것에 의심이 없느니라.

또 만일 삼보에 귀의 공경하고 나를 일컬어 대사라고 존경하며 능히 온갖 악을 버리면, 저 외도의 무리보다 훌륭하니라. 마치 악귀(나찰) 섬에 떨어진 상인들이 놀라고 당황하여 각각 짐승의 털을 하나씩 붙잡고 바다를 건너 어려움을 면하는 것과 같으니라.

이렇게 계율을 깨뜨린 사람도 온갖 나쁘고 삿된 소견을 떠남에, 하나의 믿음을 인으로 삼아 번뇌의 악귀에서 벗어나느니라. 해탈의 모양을 지녔기 때문에 모든 부처님께서 평등하게 호지하여 계율을 깨뜨린 비구도 괴롭히지 않나니, 온갖 중한 죄악에서 떠나느니라."

〈송림사 주지〉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 주 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성인병에는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 루 자 죽 염 125g 45,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82,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50,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 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